

FIRST TABLE · SEOUL

사람은 일하며 무엇을 남기는가

한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, 30분 동안 각자의 문장을 씁니다.

잘못된 글도 잘못된 사람도 없습니다. 다듬어지지 않은 일상과 문장이 있을 뿐입니다.

오늘 가져온 단어

지금 마음에 걸리는 장면

사람은 일하며 무엇을 남기는가

첫 문장이 어렵다면 여기에서 하나를 고릅니다.

-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은
 -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내가 지킨 것은
 -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남아야 하는 것은
-
-
-
-
-
-
-
-
-
-
-

WHAT REMAINS

오늘 남길 한 문장

공개범위

☐ 나만 ☐ 오늘 함께한 참여자 ☐ 편집 확인 후 공개 가능

다른 사람의 글에서 오래 남은 문장

낭독은 선택 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.	조언하지 않기 오래 남은 문장만 말합니다.
공개도 선택 기본값은 나만입니다.	밖으로 옮기지 않기 사람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바꾸지 않습니다.